

여성의 고성장기업 창업이 저조한 원인

Factors that Explain the Lag in Building High-growth Firms in Women

천혜숙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Hesuk Chun(heschun@gmail.com)

요약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고성장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기여자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창업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도 경제성장을 촉진 하며, 여성의 창업률이 남성에 비해 저조하므로 여성의 창업증진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여성의 고성장 기업창업이 남성 창업에 비해 적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기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여성창업은 전체기업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성장 기업일 경우는 6% 이하의 점유율을 나타낸다. 여성기업의 특징은 남성기업에 비해 초기투자자금이 적고, 외부자금조달이 어려워 소규모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창업을 위한 장애요인은 여성 과 남성기업이 매우 유사하지만, 여성기업의 남성기업과 차별화된 장애요인이며, 또한 여성의 고성장기업 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3가지 요인은, 외부자금 조달의 어려움(고성장 기업인 경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와 경험 및 기술의 부족, 일 과 가정의 병행 어려움이다. 이 결과는 미국의 연구결과(자금조달의 어려움, 일과 가정의 병행 애로, 여성을 위한 멘토의 부족) 와 비슷한 결과이다. 여성의 고성장기업의 창업은 아이디어와 경험 및 지식의 부족과 관련되어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 중심어 : | 여성 창업 | 고성장 기업 창업 | 고용창출 | 창업애로 | 여성과 경제성장 |

Abstract

Research on OECD and Korea have shown that high-growth startups are the keys to job creation and that these companies are very important for economic growth. Given that the large-scale entry of women into the labor force accelerates economic growth and women have far lower levels of participation in growth-oriented entrepreneurship than men do, accelerating female entrepreneurship could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uses data from several databases to do a comparison analysis between women's and men's start-up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explain the lag in building high-growth firms among women. Women startups make up nearly 34% of startups(defined as less than 7 years of establishment), but only 6% of high-growth startups. Women rarely own large businesses, reflecting their low levels of initial capital and outside financing. Regardless of gender, entrepreneurs face many of the same challenges in starting businesses, but this study shows three primary factors for female entrepreneurs that lead to a less high-growth startup: a greater financing gap than for men(this gap is more apparent for high-growth firms), a lack of ideas, knowledge, and experience(related to the lack of mentorship), and lastly the difficulty maintaining a work-life balance. The findings are very similar with those found in studie's in the US(financing gap, work-life balance, and lack of mentorship).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identify more specific factors behind the gender gap in ideas, knowledge, and experience.

■ keyword : | Women Entrepreneurship | High-growth Startup | Job Creation | Barriers to Entrepreneurship | Women and Economic Growth |

I. 머리말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요인이며, 특히 고성장 기업의 창업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는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서 보다 많은 여성인력의 활용이 특히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중요시 될 것이다. 최근 여성의 고학력 추세와 경제활동 증가에 비하여 여성의 창업, 특히 고성장기업의 창업 활동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함께 여성의 창업률이 증가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여성의 고성장 기업 창업이 남성 창업에 비해 저조한 원인을 찾기 위하여, 창업 7년 이하의 중소기업 실태조사자료와 여성기업 실태조사자료, 그리고 지식기반서비스 실태조사,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등 6가지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각 산업별 남성기업과 여성기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 2장은 창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OECD 및 우리나라의 문헌을 이용하여 살펴보았으며, 제 3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고찰해보고, 제 4장은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비교 분석하여 여성창업이 남성창업에 비해 나타내는 특성을 찾았으며, 제 5장은 각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의 창업 장애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남성에 비해 창업이 저조한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II. 창업과 신생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OECD 국가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일자리는 기존 또는 대기업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창업기업에 의해서 창출된다고 한다[1][2]. 미국에서 1980년에서 2005년에 새로 생긴 4천만 일자리는 창업 5년 이하의 신생기업들에 의해 만들어졌고[3] 2007년에 새로 생긴 일자리의 2/3는 창업기업과 5년 이하 업력을 가진 신생기업에 의해 만들어 졌다[4-6]. Calvino, et.al에 의하면 전체고용에 대한 창업기업의 고용인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창업 후 창업기업의 생존비율이 높을수

록, 창업 시에 평균 고용인 수가 많고 또한 창업 후 기업의 성장률이 높을수록 창업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한다[8]. 우리나라 연구에 의하면, OECD 국가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서 2007년에서 2012년 동안 매년 12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업기업을 통해 생겨났으며, 기존 기업들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약 311만 일자리를 감소시켰다[7].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면, 창업기업 중에서도 지식기반 서비스업, 특히 고성장 기술형 기업인 경우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8], 2014년 ICT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제조업인 경우 평균 고용인력은 18.6명이며 지식서비스업은 20.2명, ICT 중소기업은 평균 24.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9]. 지식기반서비스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는 2013년 업체당 평균 종사자규모가 21.9명인데 이들 기업 중에서 혁신형기업의 평균 종업인수가 23.9명으로서 비혁신형 기업의 평균 19.7명에 비해 고용창출이 훨씬 크다[10]. 따라서 창업, 특히 혁신형 고성장 기업의 창업을 증가시키고, 창업기업들이 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주요 요인 일 것이다.

III. 여성 창업 과 경제성장

1.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제성장

미국 연구에 의하면, 1980년 이후부터 증가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2년 미국 GDP의 11%를 증가시킴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의 증가는 경제성장과 생산성의 증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11-13]. 미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 참가율은 매우 소수로서 (여성창업은 남성창업자의 50% 정도), 여성들이 창업과 기업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 잠재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11].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가 미국 경제 성장에 양의 효과를 보인 것과 같이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 증가 또한 미국경제성장에 중요한 양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11].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효용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여성인력활용이 높은 국가 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고 한다[14].

2. 여성과 남성의 창업애로에 대한 문헌조사

Kauffman Foundation의 연구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성장 창업이 저조한 원인을 찾기 위해 고성장 기업을 창업한 350개 기업의 여성 창업자들을 인터뷰 한 결과, 성별에 상관없이 기업가들은 창업을 위해 많은 동일한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볼 때 여성만이 가지는 애로점이 있었다. 창업을 위한 멘토가 없었으며, 여성이 기업을 위한 외부자금조달이 남성보다 어려웠다[11]. 남성기업의 경우 60%의 창업기업이 은행 대출이나, 엔젤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한 데 반해, 여성기업은 48% 창업기업들만이 외부자금을 조달했다[15]. 세 번째의 여성만의 애로는 일과 가정의 병행에 대한 어려움이었다[11]. 2013년 OECD 보고서는, 남성과 여성기업의 중요한 몇 가지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다.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비율은 남성기업이 여성기업인 보다 3배정도 많으며, 여성 기업은 남성기업에 비해 소규모이다. 여성기업이 남성기업보다 영세한 원인은 여성기업의 네트워크의 부족, 창업 시 투자자금이 적고 또한 외부자금조달이 어려운 결과라고 한다[16]. 우리나라의 경우, 양현봉 외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여성기업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 창업의 가장 큰 애로점은 자금조달 이며, 특히 창업 초기에 성장을 위한 자금애로가 매우 크다고 하였다 [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여성 창업은 남성기업보다 고용증대 효과가 크나, 혁신성정도가 낮고 기업성과도 낮으며, 중기청의 정책 자금 수혜 또한 남성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한다 [18].

3.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현황

우리나라 2008-2018년 까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보면, 생산가능인구의 성별 구조가 2013년 현재 남성이 전체의 48.9% 이며 여성이 51.1%로서 여성생산가능인구가 남성보다 많다[19]. 최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3년 48.9%에서 2013년 50.3%로 상승하였으며 이에 비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3년 74.6%에서 2013년 72.1%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전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청장년층(15-29세), 중년층(30-44세)이 감소하며 45세 이상과 고령층(55세 이상)은 증가하고 있다. 성별 연령별 변화를 보면, 34세 이하의 연령대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데 남성의 감소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는 30-34세 여성의 경력단절이 점차 감소하고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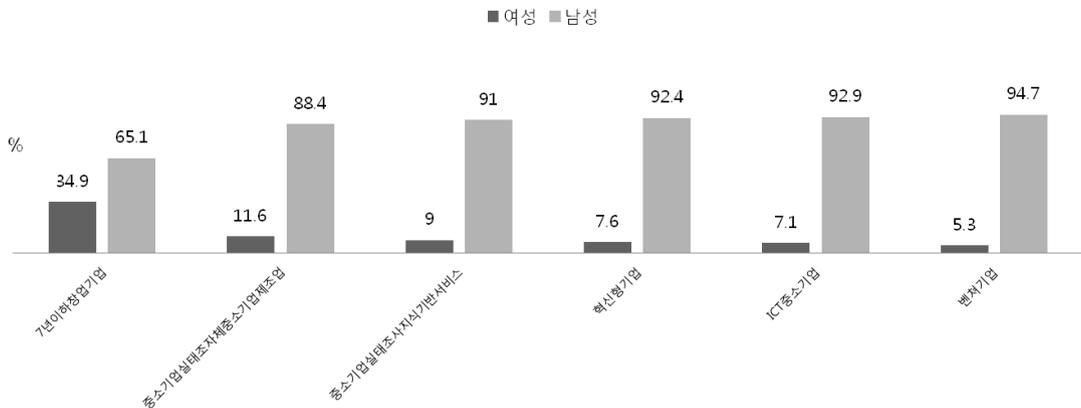


그림 1. 여성기업 점유율

(2008년 53.2%, 2018년 60.3% 로 7.15%p 증가할 것으로 예상). 노동의 질적인 면을 보면 대학진학율의 급속한 증가로 고학력자 비중이 2008년에 36.8%에서 2018년 4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남성의 고학력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2003년 89.7%, 2018년 87.1%로 예상)하고 있고 여성의 대졸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63.9%에서 2018년 66.9%로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9]. 또한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전문교육기관(전문대학이상)의 여학생 비율은 2011년 42%에서 2015년 43% 로 증가하였다[20].

IV. 여성과 남성의 기업 활동 비교분석

1. 여성기업 점유율

2012년 현재 창업7년 이하 중소기업조사를 보면, 전체기업 1,661,481업체 중에서 여성기업은 34.9% 이다.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포함한 창조산업의 여성기업 비율은 30.4%로서 전체기업의 여성기업 비율인 34.9%보다 4.5%p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인 경우는 여성기업의 비율이 17.3%로 매우 낮다 [21].

2014년 1인창조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2년 창업된 1인창조기업 사업자들의 2013-2014년 2년간의 성과조사) 전체사업체수(92,001개)에서 여성기업 비율은 28.7%로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교육서비스업의 여성기업 비율이 83.7%로서 월등하게 높은 반면 출판 영상, 방송, 정보서비스업은 18%,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이 17.8%로서 교육서비스를 제외한 창조산업의 여성 진출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22].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지식기반서비스업체 중 여성기업의 비율은 9%에 불과하다.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에서 혁신형(벤처, 경영·기술혁신)기업의 여성경영자 비율은 7.6%로서, 지식기반서비스업과 혁신형 기업의 여성기업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10]. ICT기업의 경우도 ICT중소기업 중 여성 경영자 비율은 7.1%로 나타나고 있다[9]. 벤처기업을 살펴보면, 전체 벤처기업 중 여성기업이 5.3%에 불과하다[23].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여성기업가 비율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제조업, 창조산업, 혁신형 업종으로 갈수록 여성기업의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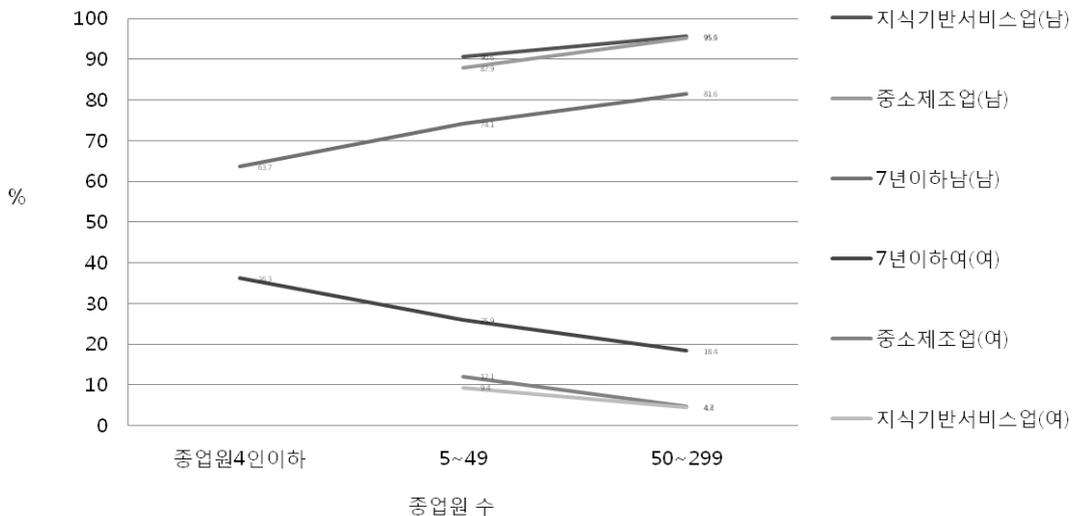


그림 2.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규모비교

2. 규모비교

창업 7년 이하기업의 종업원 규모를 보면 종업원 5인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87.4%이다. 종업원 5인 미만 기업의 여성기업 비중은 36.3%로서 전체 업력 3년이하 기업 중 여성 기업의 비중 34.9%보다 1.4%p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성기업이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5-5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기업의 비율은 25.9%, 50-300인 미만 기업의 여성기업 비중은 18.4%로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여성기업의 비중이 작아지고 있어서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에 비해 소규모 기업에 더 많이 편중되어 있다[21]. 중소기업 실태조사보고서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2013년 122,080업체 중 여성경영자 비율은 11.6%이며, 50인 미만 기업의 여성경영자 비율은 10.6%, 50인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여성경영자 비율은 3.6%로서 여성기업이 남성기업보다 소규모 기업에 많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4]. 지식기반서비스업 조사에서도 이런 현상은 동일한데, 50인 미만 지식기반서비스기업의 여성경영자 비율은 10%이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여성경영자 비율이 4%로서 여성기업이 남성기업보다 소규모 기업에 편중되어 있다[10].

3. 자금조달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업경영을 위한 자금조달은 전체 여성기업의 84.7%가 자체조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제조업(82.8%)에 비하여 제조업을 제외한 창조기업인 경우 자체조달에 의한 자금조달이 훨씬 높다(89.1%). 또한 여성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 설비투자비 조달은 내부조달이 80-90%이다. 기술개발 시 겪는 첫 번째 애로사항도 기술개발 자금부족을 말하고 있다[25]. 창업7년 이하 중소기업들의 창업자금조달을 살펴보면[표 1], 창업 시 조달자금은 창업기업 평균 228백만이며, 이중 자기자금은 80% 은행 대출이 12.1%이다. 남성기업과 여성기업을 비교해보면, 남성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250백만 원으로 여성기업의 평균 187백만 원 보다 34% 많으며, 자기자금비율은 남성기업이 78.7%, 여성기업이 82.2%로서 남성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이 훨씬 높다. 외부자금 조달 중 은행 대출비

율은 남성기업이 13.6%로서 여성기업 9.4%보다 높으며, 남성기업은 벤처 캐피탈 또는 엔젤 투자자로부터의 조달도 여성보다 높다(남성 0.5% 여성 0.3%). 여성기업은 남성기업보다 개인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남성5.7%, 여성 6.5%)[21].

표 1. 여성과 남성기업의 창업자금 조달비교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창업기업실태조사)

(% , 백만원)						
	자기자금 조달비율	개인 차입	금융기 관조달	엔젤 투자	정부 융자	평균자금조달 규모
여	82.2	6.5	9.4	0.3	1.5	187.9
남	78.7	5.7	13.6	0.5	1.6	250.4

4. 종업원 수 및 성장률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의 평균 근로자는 3.0명이며 이중 여성기업의 평균고용은 2.7명, 남성기업의 평균고용은 3.2명이다[21]. 2012년에 창업한 1인 창조기업들의 상용근로자기준 고용성장률을 살펴보면, 2년 동안 15%의 성장을 보였는데, 여성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2년 동안 17%이며 남성기업은 14% [22]로서, 남성기업이 평균 고용인이 많지만, 창업 후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해 고용의 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출액 규모를 비교해보면, 남성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676백만 원이며 여성기업 평균매출액은 381백만 원으로서 여성기업의 매출규모는 남성기업의 56%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남성기업이 평균 5.9억 원인데 반하여 여성기업의 평균은 5.5억이며, 매출영업 이익률은 남성기업이 13.1%, 여성기업이 16%로 남성보다 소규모영업이지만 매출영업 이익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출대상을 보면 남성기업은 B2B가 28.6%, B2C가 69.3%인 여성기업의 영업을 소규모 리테일에 집중되어 있어서 매출 영업 이익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21].

종합적으로 여성창업은 고용인수, 매출규모에서 남성에 비해 소규모, 리테일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표 2. 여성과 남성기업의 영업현황(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백만원, %, 명)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대상		인력현황
					B2B	B2C	
여	381.6	55.5	38.9	16.0	7.9	90.9	2.7
남	676.2	59.9	42.1	13.1	28.6	69.3	3.2

V. 여성과 남성기업의 창업애로 비교

1. 자금조달

[표 3]은 창업 7년 이하의 중소기업들의 설문조사에 대한 주요 창업애로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창업기업의 애로사항 1위는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다. 남성기업인 경우는 77.4%가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애로사항으로 말했으며, 여성의 경우는 69.4%로서, 여성기업보다 남성기업이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의 결과는 여성의 창업자금 조달금액이 남성의 75% 수준이고,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해 소규모 영세기업임으로 자본조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 일 것으로 보인다. 여성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더 확실히 위하여 여성기업 실태조사보고서에서 보고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25]. 여성기업 설문조사에 의하면[표 4], 창업 시 애로사항 1위로써 자금조달의 어려움(42.55%)을 들고 있으며, 제조업은 평균보다 낮은 34.1%를 나타내고, 창조기업은 평균보다 높은 49.1%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창업자금의 조달처는 본인조달이 기업평균 77%정도이며, 제조업(78%) 보다 창조기업이

(81%)의 본인조달이 많아서 창조기업이 타 산업보다 자금조달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25].

창업 시의 가장 큰 애로점인 자금조달에 대하여 정부나 다른 기관에 의한 자금조달 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를 [표 3]에서 요약하고 있다. [표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창업기업들 중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은 소수이며, 남성기업이 여성기업에 비해 창업지원을 받은 비율이 적다(남성:13.7%, 여성: 9.2%)[24]. 여성기업 실태조사의 설문에서도[표 4] 전체 여성기업의 87%가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제조업 87%, 창조기업 91%가 정책자금지원을 받지 못했다[25]. 창업 7년 이하 전체 기업의 85%가 창업지원사업 신청 경험이 없으며, 여성기업은 남성기업보다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창업지원사업 신청을 남성기업에 비해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또한 여성기업 설문조사자료에 의하면[표 4], 여성기업들은 창업성공요인의 1위는 자금조달능력(33%)이며,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정부지원분야에 대한 요구도 창업자금지원이 1위(51.4%)이다(제조업: 43.1%, 창조기업: 55%) [25].

종합적으로 자금조달은 모든 창업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7년 이하 창업기업의 성별 비교에서 여성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남성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여성기업의 가장 중요한 애로 및 성공요인은 바로 자금조달이다. 따라서 여성창업에서 자금조달은 창업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외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자금수요가 높은 고성장 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일 것이다.

표 3. 여성과 남성의 주요 창업애로사항 (창업7년이하 중소기업)

창업자 성별	전체	아이디 어밧아 이템의 부재	자금 확보 의어 려움	지식, 능력, 경험 의부족	실패 및 재 기에대 한두려움	창업에 대한부 정적 사회분 위기	경제활 동(생 계유지) 문제	기존직 업활동 의제한	지인의 만류	일과가 정의양 립어려움	창업 지원 사업 참여	창업지 원자금 지원받 음	창업지원사업 미 신청이유	
													알지못 함	복잡한 절차
남 자	1,081,322	5.9	77.4	15.9	31.1	1.9	24.8	1.2	1.7	1.8	84.8	13.7	43.9	20.3
	580,159	8.6	69.4	18.1	28.5	2.6	16.0	0.6	3.2	12.4	89.3	9.2	50.6	18.9

2. 아이디어 및 경험, 지식

창업기업이 애로 요인은 아이디어와 지식, 능력 경험 부족이다. 남성기업인 경우는 21.8%가 아이디어 및 지식 능력 경험 부족을 말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은 26.7%로서 남성기업보다 4.9%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어와 지식, 능력, 부족의 원인을 살펴보면, 창업기업의 81.2%가 창업교육경험이 없으며, 남성기업(81%)보다 여성기업인(81.5%)의 창업교육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교육 필요부분에 대한 답변을 보면, 창업경영 이해(기업설립과 창업, 창업회계, 창업마케팅)와 창업환경이해(창업환경전반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82.4%를 나타내고 있어서 창업을 위한 기본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분야임을 나타내고 있다. 남성과 여성기업을 비교해 보면, 여성기업의 창업경영 및 환경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80.3%)이 남성기업(83.6%)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기업은 남성기업보다 창업기회 탐색이나, 창업 특화분야 등의 창업 아이디어 제공에 더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 때문이다(남성: 37.4%, 여성: 44.1%)[21]. 이는 여성의 창업 아이디어와 지식, 경험, 능력 부족이 남성보다 더 커다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다. 창업교육에 필요한 실습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중소 벤처기업 인턴십, 창업경진대회참여, 모의창업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등 창업실전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남성기업은 69.2%이며, 여성기업은 74.9%로서, 여성기업들이 남성기업에 비해 5.7%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기업 전시회나 박람회 견학은 남성기업이

57.8%를 보인 반면, 여성기업은 56%을 나타냄으로서 여성기업이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지식 경험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창업직전 근무 기관을 보면, 남성의 68%, 여성의 65%가 중소기업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21]. 종합적으로 성공적 창업을 위해서는 사업에 사전적 지식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전적 지식과 경험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3.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해 특별한 애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이다. 이는 남성기업이 1.8% 인데 반하여 여성기업의 12.4%가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을 애로로 들고 있다[표 3][21].

IV. 결론

일자리창출에 의한 경제성장에 가장 큰 공로자는 기업의 창업과 기업의 성장이며, 특히 고성장 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크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만일 여성이 남성과 비슷하게 창업을 많이 한다면, 창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므로 여성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클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여성은 창업 참가율이 낮으며, 특히 고성장 산업의 창업 참여율이 낮다. 따라서 여성창업이 남성창업에 비해 어떻게, 얼마나 저조한지,

표 4. 여성기업의 창업관련 설문조사결과 (여성기업실태조사보고서)

	정부정책요구		창업 시 애로		창업성공요인		창업지원 정부정책요구	창업 시 자금조달방법	
	자금지원 제도	지원정책개발	자금조달	정책자금받지않음	외부자금조달	마케팅능력	창업자금지원	본인조달	금융기관
전체 평균	45.1	37.7	42.55	87	33.0	30.3	51.4	77.4	19.8
제조업	40.1	39.3	34.1	87	30.7	29.2	43.1	78.3	18.3
창조산업	54.1	40.9	49.1	91	32.3	32.1	55	81.3	16.4

또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기업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산업과 고성장 산업의 남성창업과 여성창업을 비교 분석하여, 여성창업의 남성에 비교한 특성을 찾고, 또한 고성장 산업 여성창업의 남성에 비교한 특성 및 창업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여성 창업 기업과 남성기업을 비교하여 여성창업의 특징을 요약하면, (1) 여성창업이 전체 창업의 34%이며, 창조산업으로 갈수록 여성기업의 비율은 적어지며 벤처 산업에서 차지하는 여성기업 비율은 6% 이하이다. (2)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에 비해 종업원 5인 이하에 편중되어있고, 매출규모도 남성기업의 1/2 정도로 소규모 기업이며, 매출대상도 91%가 개인대상 매출에 집중되어 있다. (3) 여성기업의 창업자금 조달 규모는 남성기업 조달규모의 75% 정도의 소자본이다. (4) 여성창업의 외부자금 조달 비중이 남성기업에 비해 적고, 자체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높다. (5) 고성장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외부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높고, 창업 성공을 위해서 자금조달이 중요한 창업성공의 요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다음으로, 여성 창업기업의 애로점을 남성기업에 비교해 보면, 모든 창업 기업이 동일한 애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여성기업이 남성기업과 다른 애로점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1) 외부자금조달의 어려움 (2)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지식과 경험의 부족 (3)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미국의 Kauffman Foundation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창업 아이디어와 경험, 지식 부족은 여성기업을 위한 멘토의 부족과 관련된 요인임).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교해서 나타나는 특징들(여성기업의 상대적 비중이 낮음, 소규모, 자체자금조달 비중이 높음 등)은 결국 외부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지식 과 경험의 부족에 의해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들 원인은 특히 고성장 기업창업인 경우에 더욱 심화되어 여성의 고성장 기업 창업을 남성에 비해 매우 저조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 연구가 기존 여성기업 연구와 다른 점은 전체 창업에 대비해 고성장 창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여성창업을 남성대비 비교 분석함으로써, 창업 활동에서의 성적 차별화를 실증적

으로 조사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여성의 고성장 창업 수가 많지 않으며, 기업 데이터베이스의 설문이 여성의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지식과 경험의 부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이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J. D. Harrison, "who actually creates jobs: start-ups, small businesses or big corporations?," The washington post, 2013(4).
- [2] W. Vivek, "Why Andy Grove is wrong about job growth," <http://www.bloomberg.com>, 2010(7).
- [3] F. Calvino, C. Criscuolo, and C. Menon, "Cross-country evicence on Start-up Dynamic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 OECD Publishing, 2015(6).
- [4] S. Dane, "Where will the jobs come from?," <http://www.kauffman.org>, 2011(4).
- [5] Neutralism and Entrepreneurship: The Structural Dynamics of Startups, young Frims, and Job Creation, 2010(9).
- [6] F. Thomas, "Start-Ups, Not Bailouts," <http://www.nytimes.com>, 2010(4).
- [7] 조덕희,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4-732, 산업연구원, 2014(12).
- [8] I. Hathaway, "Tech Starts: High-Technology Business Formation and Job Creation in the United States," Kauffman Foundation, 2013(8).
- [9] ICT중소기업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 [10] 지식기반서비스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실태조사(2008-2014) <http://kosis.kr.statisticslist>.
- [11] F. Emily, "Women Entrepreneurs are Key to Accelerating Growth," <http://www.kauffman.org>, 2015(7).
- [12] M. Lesa and M. Ewing, "Overcoming the Gender GAP: Women Entrepreneurs as Economic

- Drivers," Kauffman Foundation, 2011(9)
- [13] M. Ewing, "Sources of Economic Hope: Women's Entrepreneurship," Kauffman Foundation, 2014(6).
- [14] 성효용, "성별다양성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질서경제저널, 제17권, 제4호, pp.93-108, 2014.
- [15] F. Emily, "Why the lack of Women Leaders is a Problem for Businesses," <http://www.kauffman.org>, 2015(2).
- [16] O. Jonathan, "Maximizing Dividends form Female Entrepreneurs," <http://www.kauffman.org>, 2014(7).
- [17] 양현봉 외,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2014-697호), 산업연구원.
- [18] 이택면, 창조기업의 여성 친화성과 창조경제실태, 연구보고서 2014-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8-2018),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 [20] <http://www.moe.go.kr>
- [21] 2014 창업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5(10).
- [22] <http://kosis.kr.statisticslist>
- [23] 2015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2015(11).
- [24] <http://kosis.kr.statisticslist>
- [25] 2013 여성기업 실태조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3(12).

저 자 소 개

천 혜 숙(Hesuk Chun)

정희원



- 1978년 2월 : 연세대학교 이학사
- 1993년 5월 :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학석사
- 2000년 5월 : 조지워싱턴대학 경제학박사
- 현재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관심분야> : 금융, 자본시장